

연세대학교 스티imson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안대환*

¹충북대학교 건축학과

Comparison with Characteristics of the floor plan of Stimson hall, Underwood hall, Appenzeller hall in Yonsei University

Dai-Whan An¹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의 주요 건물인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스티imson관의 평면계획에 대한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 건물들은 일제강점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이 건물들은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작하고 각각의 건물들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반면에 각 건물들은 개별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각 건물들의 계단, 복도, 홀 등의 공용공간을 비교 분석하여 각 건물들의 서로 다른 점을 특징으로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각 건물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야 했기 때문에 평면 계획에서 공용공간과 각 실들의 배치 방식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는 평면 계획과 마스터 플랜, 입면 계획, 구조계획 등 다른 건축 계획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관성은 각 건물들이 가진 평면계획의 개별적인 특징들이 각 건물의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loor plan of Underwood hall, Appenzeller hall, and Stimson hall in Yonsei University. These buildings in Yonsei University are the representativ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buildings that were constructed by Western missiona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se buildings were designed by the master plan that had been made before the construction. Therefore, these buildings have many similarities but each building h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cused on two parts. One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space, such as like corridor, hall, and stairs.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building because they used different methods and locations of shared space and rooms for the floor plan to include the different functions. The second is the relationships with the floor plan and other plans like the master plan, elevation plan, and structural plan. These relationships show that each building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are related to the floor plan.

Keywords : Underwood hall, Appenzeller hall, Stimson hall, Floor plan, Function of buildings, Master plan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개항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근대 고등교육기관

이 급속하게 많이 건립되었다. 특히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에 목적을 두고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한옥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예 서양식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

*Corresponding Author : Dai-Whan An(Chungbuk National Univ.)

Tel: +82-10-2757-4229 email: an4229@cbnu.ac.kr

Received September 3, 2015

Revised (1st December 7, 2015,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로 학교를 건립하였다.[1][2]

그 중에서도 연세대학교는 서양 선교사와 건축가에 의해 서양 대학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서양식 건물 양식으로 건립된 대표적인 학교이다. 특히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은 초기에 지어진 연세대학교의 중심건물로서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드물게도 미리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따라 배치되었고 구체적으로 개별건물에 대하여 계획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 건물들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을 지키면서도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근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의 가치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어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2013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3][4][5]가 나온 것 이외에는 제대로 연구된 부분이 적다. [6][7]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인 실측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으므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관, 스팀슨관, 아펜젤러관에 대한 건축적 특징을 찾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8] 중 일부로서 평면구성을 서로 비교하여 각 건물들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건축계획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면구성의 특징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에 마스터 플랜을 먼저 계획하고 이에 따라 건립된 연세대학교의 각 건물들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찾는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일제 강점기에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서양식 건축물인 언더우드관, 스팀슨관, 아펜젤러관의 평면 구성이다. 이 건물들은 미리 작성된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건립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구 방법은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파악한 후에 각 건물들에 대하여 현재의 평면도를 분석하여 서로 다르게 계획된 부분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평면 구성에서 공용공간과 실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건립당시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공용공간이

나 실의 구성 및 배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작을 뿐 아니라 평면계획의 개별적인 특성을 명확히 찾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건물들의 평면계획에서 찾아지는 특징과 배치, 입면, 구조계획과의 연관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현재의 평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2013년 실측조사보고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 건물들에 대한 도면과 사진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인용한 도면의 출처는 실측조사보고서이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1917년 배치계획에서의 세 건물의 배치특징

1918년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식 학교를 건립하고자 했다. 헨리 머피(Henry K. Murphy)가 1917년 기존의 지형도와 지도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마스터플랜은 서양식 대학의 마스터 플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9] 이후에 부지를 방문하였던 머피는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스팀슨관의 개별적인 건축설계도 하였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헨리 밀러(E. H. Miller)가 세 건물 공사를 모두 감독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연세대학교의 배치 개념과 각 건물에 대한 계획 개념 뿐 아니라 상세한 부분까지도 연계성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각 건물은 서로 다른 평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스터 플랜의 주요 건물 부분[10]을 보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에 과학관(Science Bd. 아펜젤러관)과 채플(Chapel)이 있으며 서쪽에 강당(Auditorium 스팀슨관)과 도서관(Library)이 있다. 북쪽에는 타워(College Tower)와 타워 양쪽에 학관(Academic Bd. - 언더우드관)이 하나의 건물로 되었으며 이 건물 좌우로 강의동(Recitation Bd.)이 설치되어 있다.

마스터플랜과 세 건물들 사이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세 건물이 계획된 마스터프랜의 부분을 보면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배치구성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심축선상에 있는 건물은 대학본부로 사용되어야 하나 연세대학교에서는 중심축선상에 위치한 건물이 강의동인 학관(언더우드관)으로 계획되어 있고 본관(스티imson관)은 동쪽에 배치되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관은 건물을 통과하는 통과동선을 만들어야만 했고 과학관과 강당은 별도의 통과동선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배치상의 특징은 개별 건물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마스터플랜에서는 각 건물의 용도를 건물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건물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같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학관과 타워를 분리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각 건물들이 건립된 이후 실제 사용하였던 건물의 용도와 마스터플랜상의 명칭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즉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때 이미 개별 건물에 대하여 평면계획을 포함하여 각종 계획에 대한 고려를 상당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Part of Main buildings in 1917's masterplan
Source : [3]:64

개별 건물에 대한 설계는 머피가 한국에 방문한 1918년 5월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하여 건물들의 독특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평면 계획의 특징

3.1 스티imson관

본관으로 사용되었으며 내부에는 사무실, 교장실, 학

감실, 강당, 교수회의실, 신학실, 교원실, 회계실, 사무실 및 건축과 등의 실을 두었다. 현재는 대학원 본부로 사용되고 있어 대학원장실, 대학원 행정실, 홍보실, 기자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층은 계단의 좌측부분만 사용한다. 1층과 2층은 중복도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좌측 부분의 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만들었으며 우측공간에는 대형공간을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건립당시에는 2층의 계단 우측은 전체가 벽체 없이 강당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벽체에 의해 여러 실로 나누어져 있다.

3층은 지하층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좌측 부분만 창고로 사용한다. 좌측 부분만 사용되는 이유는 2층 우측에 층고가 높은 강당을 만들기 위해 3층의 상부까지 강당의 천정공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부가구조가 창고쪽과 대형공간쪽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2가지의 가구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티imson관의 중앙부에는 현관과 중앙 홀을 두었으며 홀의 배면쪽으로 계단실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계단실 뒤로 건물 배면의 부출입구를 설치하였다. 건물 중앙부 배면에 있는 지하1층의 계단형식과 1층에서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형식이 다르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물 중앙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정면쪽에 있으며 간이 계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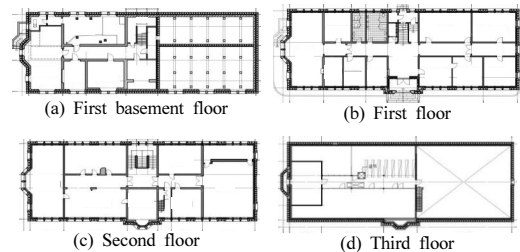


Fig. 2. Plan of Stimson Hall
Source:[3] 207 ~ 210

3.2 아펜젤러관

이학관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 물리, 화학, 생물학, 실험실, 물리 및 화학교실, 표본실, 교원실 등이 있었다. 현재는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사용되며 대학원의 강의실, 교수실, 행정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의 이학관으로 사용하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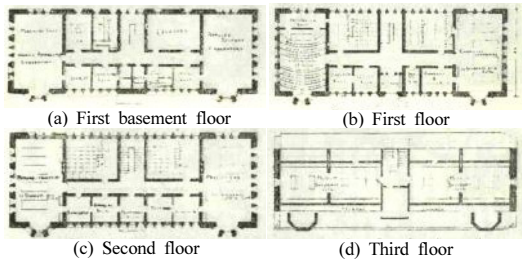


Fig. 3. Plan of Appenzeller Hall in Korea and architecture Source:[9]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는 중복도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도 끝에는 대형공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3층은 지붕층으로서 지붕에 의한 경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고 중앙의 천정이 높은 부분은 복도없이 대형공간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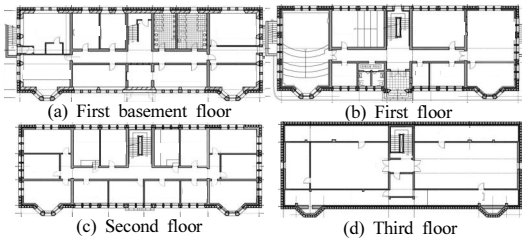


Fig. 4. Plan of Appenzeller Hall Source:[4] 210 ~ 213

건물의 중앙부에는 현관과 홀을 두었고 건물의 배면 쪽에 계단실을 설치하였다. 계단실 배면부분에 건물 배면의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정면 현관에서 배면 부출입구까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1층에서 시작되는 건물 중앙부의 계단실은 3층까지 그대로 사용된다.

3.3 언더우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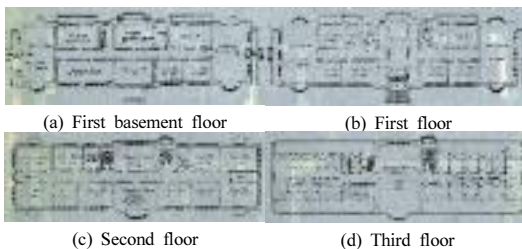


Fig. 5. Plan of Underwood Hall in Korea and architecture Sourc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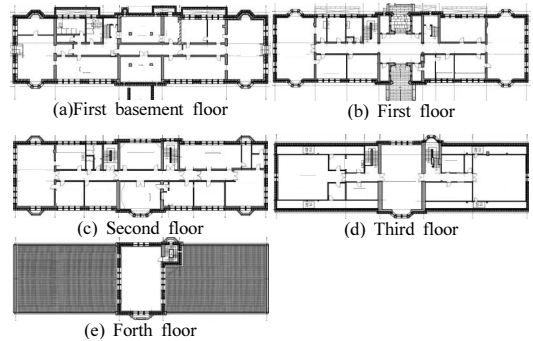


Fig. 6. Plan of Underwood Hal Source:[5] 210 ~ 214

학관을 위한 건물로서 주로 교실이 배치되었으며 그 외에도 교원실, 타이프라이터실, 제도실, 도서관 및 식당 등이 있었다. 현재는 본관으로서 총장실, 교무처, 기획실, 총무처 등의 시설이 들어 있다.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는 중복도 형식이며 복도 끝에는 대형공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3층은 지붕층으로서 지붕에 의한 경사가 진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고 중앙의 천정이 높은 부분은 중복도를 설치하여 복도끝에는 대형공간으로 구성하였다. 4층은 타워부분으로서 계단실과 단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더우드관의 중앙부에는 아펜젤러관, 스팀슨관과는 달리 현관과 홀을 두고 홀의 좌우에 계단실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면 출입구와 배면 출입구 사이에 홀만을 두게하여 통과동선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 외에도 외부에서 지하층으로의 출입구는 건물의 좌우에 설치하였다. 세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계단실이 2개이며 좌측 계단실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이며 우측 계단은 1층에서 옥상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평면 계획의 비교

이번 장에서는 개별적인 건축 요소를 기준으로 각 건물들에 대한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아펜젤러관과 언더우드관에 대한 초기의 도면은 「Korea and Architecture(朝鮮と建築)」 [9]에 나타나지만 스팀슨관의 도면은 없다. 게다가 도면이 작고 구체적이지 않아 개별적인 건축요소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밀실측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실측도면(2013)으로 개별적인 건축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개별적인 건축요소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도 변화하기 어려

운 부분인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각 건축물들의 특징을 찾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1 복도 계획의 비교

4.1.1 중복도 구성과 대형공간 배치의 비교

스템스관 지하1층에서 2층까지는 중복도의 좌우로 각 실을 배치하고 복도의 끝에 대형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층의 우측에는 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구성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개념이 꼭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각 실의 구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템스관은 지하1층과 3층은 건물의 좌측만 사용하고 있다. 중복도이며 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설치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3층의 우측부분은 창고로서 1개의 대형공간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간이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중복도를 구성하고 있다.

2층의 좌측부분은 초기에는 중복도 없이 강당으로서 하나의 대형공간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중복도를 만들어 몇 개의 실을 구획하고 중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만들었다. 층고가 높은 강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3층의 좌측 부분까지 지붕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대학본부로 사용하기 위한 강당과 창고 등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펜젤러관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실들을 구성하는 방식이 스템스와 동일하게 중복도의 좌우로 각 실을 배치하고 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배치하는 개념이다. 현재도 중복도끝의 대형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Korea and Architecture(朝鮮と建築)」의 초기 계획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3층은 지붕층으로서 층고가 낮은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층고가 높은 부분은 대형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계획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공간을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더우드관도 아펜젤러관이나 스템스관과 같은 방식으로 중복도형식이며 복도 끝에 대형공간을 구성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초기 계획에서는 지하층에서 2층까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거의 변형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우측만은 대형공간을 이루지 않는다. 3층도 지붕층으로서 복도와 중복도 끝의 대형공간이라는 형식을 유지하였다. 4층은 타워 부분만으로 복도 없이 하나의 대형공간과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복도와 복도 끝의 대형공간을 만드는 계획이 각 건물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템스관은 강당을 포함한 대학본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실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펜젤러관은 과학관에서 필요한 실들을 구성하였지만 사학복지대학원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각 실들의 구성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언더우드관은 교육을 위한 기능인 학관으로 계획하여 대형 강의실을 복도 끝에 배치하는 등의 구성을 하였다. 현재는 본관으로 사용되면서 행정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기본적인 실 구성의 개념을 예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복도와 복도 끝의 대형공간이라는 계획의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최상층인 3층이라고 할 수 있다. 3층은 경사 지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중복도를 설치하고자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각 건물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템스관은 대학본관과 강당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중복도의 형식을 지키고 있으며 언더우드관도 개략적인 중복도형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펜젤러관은 대형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4.1.2 복도위치와 실 규모의 비교

아펜젤러관 복도 구성의 특징으로는 중복도가 건물의 정면과 배면사이의 중앙부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건물의 정면 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아펜젤러관의 예전 도면 <fig 3>을 보면 복도의 배면(동쪽)은 상대적으로 대형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도의 정면(서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학관으로서 정방형에 가까운 대형공간이 요구되는 실험실 등은 배면(동쪽)에 구성하였으며 정면(서쪽)에는 교원실, 강의실 등 소형 공간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용도가 바뀌었으므로 배면쪽의 대형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공간인 복도의 위치는 현재도 치우쳐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언더우드관과 스템스관은 중복도가 건물 정면과 배면 사이의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다.

언더우드관의 도면<fig 5>을 보면 1층과 2층은 대부분 유사한 크기의 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1층을 보면 실들의 면적이 각기 다르다. 언더우드관의 경

우는 복도를 건물의 측면 중앙에 배치했기 때문에 폭은 일정하지만 대신에 길이가 길어야 하는 실을 지하에 배치하고 유사한 규모의 실들을 지상에 배치하였다. 즉, 복도를 중앙에 두고 실들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의 면적을 조정한 것이다.

스팀승관을 보면 중복도 좌우로 각 실들이 다양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2층 우측의 강당과 같이 중복도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복도의 배치는 마스터 플랜에서 아펜젤러관이 이학관으로, 언더우드관은 학관으로, 스팀승관은 본관으로 계획되었을 때부터 용도상의 영향을 받아 평면이 구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4.1.3 복도 폭의 비교

복도의 폭을 보면 아펜젤러관은 2.14m, 언더우드관은 2.38m, 스팀승관은 2.26m이다. 상대적으로 언더우드관의 복도 폭이 가장 크고 스팀승관, 아펜젤러관의 순서로 복도의 폭이 작다.

스팀승관은 본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졌고 특히 2층에 강당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아펜젤러관에 비하여 복도 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관은 건물의 규모가 크고 학관으로서 교육의 목적이 커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팀승관에 비교하여 12cm, 아펜젤러관에 비교하여 24cm 정도만 크다. 언더우드관은 계단실이 2개소로서 사용자를 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복도의 폭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펜젤러관은 이학관으로서 사용자의 수가 적고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복도 폭이 상대적으로 좁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복도의 폭은 각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추어 서로 다르게 계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2 중앙 계단의 비교

스팀승관은 홀을 지나서 배면에 4.66x5.12m 규모의 계단실이 있다. 계단실의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깝다. 1.78m폭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4.68m 폭의 계단참의 중앙부분이 된다. 계단참의 양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폭 1.5m 가량의 계단 2개가 붙어 있는 형식이다. 이러한 계단 계획 방식은 대형 건물에 장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

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할 때 유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스팀승관이 본관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언더우드관에 비하여 작더라도 중앙계단은 규모가 크고 장식적인 계단형식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펜젤러관은 스팀승관과 동일하게 2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홀을 지나서 배면 쪽에 설치된 중앙계단을 올라가게 된다. 중앙 계단실의 규모는 3.75x6.23m이며 스팀승관은 달리 직사각형에 가깝다. 계단의 폭은 1.42m으로 스팀승관보다 작다. 중앙 계단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계단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학관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한정적인 인원이 사용하는 용도로서 효율적이고 단순한 방식의 중앙계단을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언더우드관은 스팀승관이나 아펜젤러관과는 달리 정면출입구와 배면출입구의 사이에 홀이 있으며 계단실은 홀의 양쪽에 붙어 있다. 즉 계단실은 2개로서 건물의 복도 시작지점의 배면쪽에 위치한다.

홀의 좌측 계단은 3.22x 5.89m의 계단실로 시계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3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좌측 계단은 외부 벽면에 붙여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우측 계단은 3.37x 5.89m의 계단실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1층에서 4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3층부터는 외부 벽면에서 돌출되어 있어 배이윈도우를 설치하였으며 타워의 측면에 붙어 장식적인 효과를 가진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사용자의 수가 많지만 복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계단을 2개소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개소의 중앙계단이 설치된 층이 서로 다른 것도 사용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각 건물의 중앙 계단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그 형태와 위치가 서로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3 중앙홀과 동선의 비교

스팀승관은 건물의 평면에서부터 보면 정면계단-현관-홀-계단실-배면출입구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 아펜젤러관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 부분은 4.66mx13.2m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현관의 길이는 2.38m이고 홀의 길이

는 5.51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계단의 길이는 5.3m이다.

아펜젤러관도 건물의 정면에서부터 보면 정면계단-현관-홀-계단실-배면출입구의 순서를 가진다. 이 부분은 3.75m×12.82m의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스텝스관 보다 작다. 현관의 길이는 3.2m이고 홀의 길이는 5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계단의 길이는 4.62m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펜젤러관과 스텝스관을 비교하면 아펜젤러관의 폭은 스텝스관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 즉 건물의 중앙부 공용공간의 규모가 아펜젤러관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본관이었던 스텝스관의 사용자가 아펜젤러관의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아펜젤러관의 사용자는 이학관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관은 정면계단-정면현관-홀-배면현관-배면출입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실은 배면 현관의 양쪽에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T 자형태를 이룬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학관으로서 사용자들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계획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언더우드관은 부지의 중심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배면을 통과하는 동선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계단실을 측면으로 배치하여 통과동선을 만들었다.

5. 평면 계획과 다른 건축 계획과의 상관관계

5.1 배치계획과의 관계

아펜젤러관, 스텝스관, 언더우드관은 광장을 중심으로 ㄱ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부지 중심축에서 광장 북쪽에는 언더우드관이 있어 남향을 하며 스텝스관은 광장 서쪽에 있고 아펜젤러관은 광장 동쪽에 있어 광장을 향해 있다.

일반적인 서양대학 계획에서는 광장 북쪽에 본관이 설치되고 광장 양쪽에 강의동 등이 배치된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스텝스관이 본관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스텝스관은 공용공간의 면적을 넓게 하였고 지붕층을 창고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본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배치로서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 구성은 본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에 언더우드관은 강의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관이지만 부지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여 광장의 북쪽에 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통과동선을 만들어야 하므로 홀의 크기도 크게 하며 계단실을 홀의 좌우에 위치시키게 된다.

아펜젤러관만이 이학관으로서 주축선상의 동쪽에 계획된 것이 서양 대학 건축 계획의 일반적인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 상부 목가구 계획과의 관계

아펜젤러관과 언더우드관은 3층인 지붕층을 행정실, 도서관 등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에 맞는 상부 목가구를 적용하였다. 아펜젤러관의 지붕가구 구조는 기둥, 보, 중도리가 간단한 받침으로 유지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간이트리스 형식이다. 간이 트리스 형식 중에서도 도리없이 인자보만 가지고 있는 서양식 2x4 목구조 유형이다 [10]. 보가 없기 때문에 상부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더우드관은 타워의 양 옆에 붙어 있는 날개채에서는 아펜젤러관과 동일하게 간이 트리스 형식 중에서 도리 없이 인자보만 가지고 있는 서양식 2x4 목구조 형식이 사용되었지만 타워에서는 평지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언더우드관은 날개채의 트리스구조가 타워에 의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스텝스관 남쪽은 간이트리스 형식 중에서 도리가 있는 유형이며 북쪽은 도리없이 인자보만 있는 서양식 2x4 목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즉 남쪽 부분은 3층인 지붕층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리가 있는 유형을 사용한 반면 북쪽 부분은 2층의 층고를 높이기 위해 서양식 2x4 목구조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즉 2층과 3층의 평면 구성에 따라서 지붕가구구조가 2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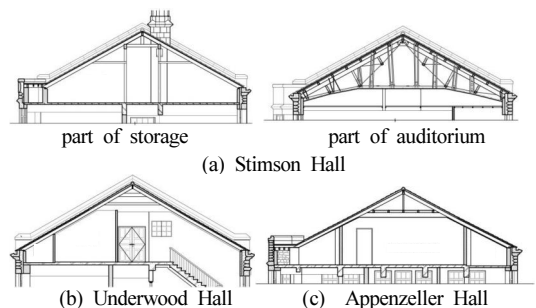


Fig 7. Upper Wooden Structure Source:[3], [4], [5]

5.3 입면 계획과의 관계

5.3.1 출입구 입면 계획과 통과동선

스팀슨관과 아펜젤러관은 중앙부의 전면계단-현관-홀-계단실-배면출입구의 평면구성이 동일하다. 배면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실의 우측으로 몇 단의 계단을 내려간 후에 배면 출입구가 있다. 즉 계단참에 배면 출입구가 설치된 것이다. 계단실이 건물의 배면에 붙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면 출입구를 정면 출입구처럼 크게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배면 출입구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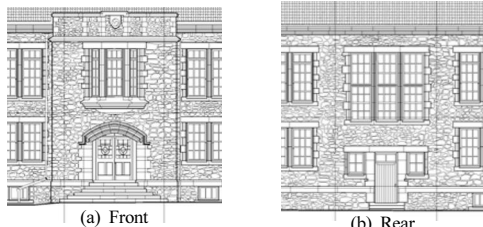


Fig. 8. Elevation of Stimson Hall Sourc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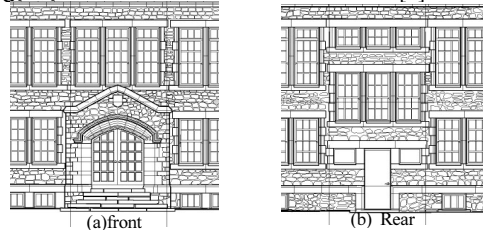


Fig. 9. Elevation of Appenzeller Hall Sourc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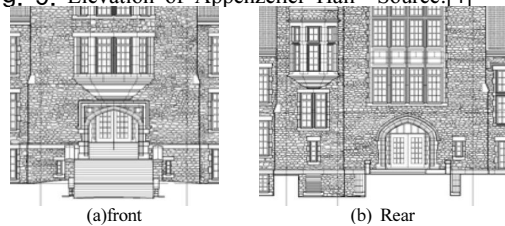


Fig. 10. Elevation of Underwood Hall Source:[6]

반면에 언더우드관은 전면계단-현관-홀-배면출입구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계단실이 홀의 양쪽으로 설치되면서 전면계단 상부에서 배면출입구까지 바닥레벨의 변화없이 통과동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언더우드관의 배면 출입구는 정면출입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식적이지는 않지만 아치를 구성하는 등의 장식을 하였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입면을 구성한 점은 배면 출입구가 통과동선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5.3.2 계단실입면 계획과의 관계

아펜젤러관과 스팀슨관은 중앙 계단실이 1개로 되어 있으며 건물의 배면에 붙여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배면의 창호배열 중에서 계단실의 배면 창호의 크기와 배열이 주변의 창호 크기와 배열과는 다르다.

아펜젤러관은 3층까지 일반실로 사용되기 때문에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참에 창호가 설치되고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참이 있기 때문에 지붕과의 사이에 높이가 낮은 창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즉 3층이 있다는 표면을 입면 구성에서 한 것이다.

반면에 스팀슨관은 3층이 창고로 사용되고 3층 계단실도 중앙 계단과는 별도로 있으므로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참의 창호는 높이가 높고 크기가 크게 설치되어 있다. 즉 일부만 창고로 사용하는 3층이 있다는 표현을 입면구성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더우드관의 계단실은 홀의 좌우에 2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다. 홀의 좌측에 있는 계단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배면의 창호도 이에 따라서 지하1층에서 1층사이의 계단참,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참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홀의 우측 계단실은 벽면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으로서 입면 구성상에서 타워와 함께 시각적인 장식 요소로서 사용된다. 계다가 베이윈도우까지 설치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스팀슨관, 아펜젤러관, 언더우드관의 평면구성에 따라서 계단실의 창호의 입면 구성이 서로 다르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연세대학교의 초기 건물인 스팀슨관, 아펜젤러관, 언더우드관이 가진 개별적인 평면계획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평면계획과 배치계획 및 구조, 입면계획과의 관계를 찾아보아 평면계획이 가진 특징들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머피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건물들을 계획하였으므로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들의 평면계획은 각각 서로 다른 독특

한 특징을 가진다.

스티imson관은 마스터플랜에서는 부지의 중심축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본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중복도 끝의 대형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공용공간인 복도의 폭이나 중앙계단실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며 계단실이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다. 2층에 층고가 높은 강당과 3층 일부에 창고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해 상부 목가구를 2개의 종류로 구성하였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입면 구성에서 3층이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강당에서 직접 외부로 출입하는 계단을 계획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펜젤러관은 마스터플랜에서는 부지 중심축의 동쪽에 이학관으로 계획되어 제한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공용공간인 복도 폭이나 중앙 계단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사각형의 큰 공간으로서 실험실과 작은 공간으로서 강의실이 동시에 필요하여 복도를 정면에 치우쳐 계획하였다. 3층에는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티imson관과 다르게 입면 구성상으로는 3층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공간확보를 위해 간이트러스형식의 목구조를 사용하였다.

언더우드관은 마스터플랜에서 학교부지의 중심축선에 학관으로 계획되어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하므로 홀 좌우에 2개 계단실을 설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면에서 배면까지 통과동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3층 공간 확보를 위해 상부의 목가구는 아펜젤러관과 같이 간이트러스형식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형태로 계획된 2개의 계단실은 비대칭적인 입면구성의 특징을 만들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의 각 건물들이 가진 유사성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적인 개별 건축물의 평면 계획에 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각 건물들은 용도에 따라서 평면계획에서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적인 특징은 평면계획에서 출발하여 입면계획, 구조계획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각 건물들의 고유한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의 흘러도 각 건물이 가진 평면계획에서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대학 건축 계획에 대한 비교 연구

는 마스터플랜에서부터 세부 계획까지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많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ee-Seop, Shin, "Characteristics of the styles of school building erected by western missionaries in Korea, 1880~1950",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6.
- [2] Sang-Hun, Joo. Bong-Hee, Jeon, "An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ayout Programs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Governmental Middle&High Schools of Seoul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9.
- [3] Cultural Heritage ministraton of Korea, Survey Report of Stimson Hall in Yonsei University, Seoul, 2013.
- [4] Cultural Heritage ministraton of Korea, Survey Report of Appenzeller Hall in Yonsei University, Seoul, 2013.
- [5] Cultural Heritage ministraton of Korea, Survey Report of Underwood Hall in Yonsei University, Seoul, 2013.
- [6] Sang-Yun Lee, Stimson Hall, Underwood Hall& Appenzeller Hall in Yonsei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9(4), 26-29, 2012.
- [7] Su-Yong Jung, study on gothic design for the elevation composition of modern building i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6.
- [8] Dai-Whan An, Comparison with the Elevation Composition of Underwood hall, Appenzeller hall and Stimson hall in Yonsei Univers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and Design Section, 30(10), 123-132, 2014.
DOI: http://dx.doi.org/10.5659/JAIK_PD.2014.30.10.123
- [9] Korea and Architecture(朝鮮と建築), Society of Korean Architecture(朝鮮建築會), 7(3), 1928.
- [10] Chang-Beom Park,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Wooden Roof Truss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Korea.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pp53-54, 2009.

안 대 환(Dai-Whan An)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학박사)
- 1999년 5월 ~ 2013년 1월 : (주)성종합건축사사무소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문화제, 한국건축사